

거제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우리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며 땀 흘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거제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상공인 여러분께서 예기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시름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과 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적인 일상과 경영 환경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수해 복구와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거제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거제가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과 연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거제지역 권역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본격화되는 등 거제가 남해안권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이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연이은 대규모 수주 낭보는 거제 경제의 부활을 알리는 든든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대 조선소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교섭을 원만하게 합의 타결지은다면 지역 사회의 상생과 신뢰를 보여준 최고의 선물이며, 거제의 밝은 비전을 더욱 확고히 증명해 줄 좋은 선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비전은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과 거제 시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기후 변화와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거제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가올 거제의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회원사 임직원 모두의 안전한 일터와 가정 내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년 9 월 22 일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점수, 상임부회장 권수오,
부회장 이현국, 양성우, 정병철 드림